



「신문」

김혜자씨! 미안합니다.

1979년 10월. 덧없는 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루 하루 짧아져 가는 가을 햇살 만큼이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불안하기만 했다.

‘부산과 마산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일종의 강력한 조치를 구상 중이다’, ‘박 정권은 이제 곧 무너진다’ 등 설부른 희망과 공포가 뒤섞이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였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팽배하여 가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문에는 1면 톱으로 ‘식량 자급’, ‘쌀 사상 최대 풍작’이라는 대서특필과 함께 부제로 ‘누구나 쌀막걸리를 만들어도 좋다’는 기사가 실렸다. 쌀을 자급자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허리를 졸라 매느라 그 좋아하던 막걸리(그 당시는

가정에서 술을 빚을 수가 없었다. 전매법에 걸려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도 빚어 마시지 못했던 충직스러운 국민들에게 드디어 마음껏 술을 만들어 마셔도 좋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시혜를 베푼다는 것이었다.

나는 신문을 보면서 울분을 삭힐 수가 없었다. 그 해도 사실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기 때문이다. 병들어 나자빠져 있는 벼들로 들녘은 마치 황무지와도 같이 건조한 바람만이 제 세상을 만난 듯 차갑게 휩쓸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쌀 최대 풍작’은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꿈수였던 것이다. 거기에다 쌀막걸리라! 신문을 뒤적이던 나는 우연히, 당시 금성(현재 LG그룹) 가전제품 광고



「신문-막걸리」

모델로 나와 배시시 웃고 있는 텔런트 김혜자씨의 얼굴로 눈길이 갔다. 순간 '막걸리 통에나 빠져 버려라' 하며 애꿎은 화풀이를 그녀에게 하고 말았다. (김혜자씨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나는 신문에 직접 작업을 하였다. 신문 작업은 바로 그 전 해에도 한 적이 있다. '땅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은 시중의 일간지를 모두 모아 권력의 시녀였던 당시 언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다. 내 작품을 통해 당시 언론의 비굴함을 훗날 역사에 남기려는 일종의 증거물에 다름 아니었다. 텔런트 김혜자씨가 이 작품 「신문-막걸리」를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았다면 이해하는지, 어쨌거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김혜자씨! 미안합니다.

나는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적이 되어버린, 작품 속의 김혜자씨(다시 한 번 미안합니다)로 하여금 빠져 죽을 때까지 실컷 막걸리를 마시라고 종그래기(작은 바가지)까지 띄어 주었다. 그런데 작품이 완성된 며칠 후 독재자 박정희는 충실한 심복이었던 김재규의 총부리에 쓰러진다. 마치 기원전 1세기경, 믿었던 부하 부루터스의 칼에 살해당한 로마의 폭군 줄리어스 시저처럼 말이다. 박정희의 전혀 비장하지 않은 허망한 최후를 보면서 나는 영국의 사회철학자 토마

스 홉스가 말한 다음 구절을 되뇌이고 있었다. 죽어서야 비로소 끝이 나는 권력에 대한 하염없는 갈망, 그것은 인간의 주된 욕망이다.

나는 이 작품의 성공(?)에 힘입어 다음 해에 열렸던 '현실과 발언' 창립전에 「신문」을 출품했다. 신문은 정보가 아니라 신문지, 즉 종이조각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똥 받기, 똥 닦기, 코 풀기, 눈 가리고 아웅하기, 도시락 싸기, 종이배 접기, 불 지피기 등. 당연히 이 작품은 1991년이 되어서야 겨우 발표할 수가 있었다. 이 작품에는 전두환 독재에 대한 숨은 경고가 있다. '強梁者 不得以死(강자는 그 힘으로 하여 반드시 죽게 마련이라)' 라는 한자가 우측 하단에 습자연습으로 쓰여져 있다.

www.oksanglim.com



임옥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광주교육대학 교수(1979-81)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1981-92)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1986)
 민족 미술협의회 대표(1993-94)
 저서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벽 없는 미술관